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12 월 선교편지

DEC 1, 2017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벰전 2:12)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2017년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일일이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많은 열매들이 맺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12월 한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낮아지어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간곡히 함께 부탁드립니다.

1. 국제의료봉사사회와 함께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국제의료봉사사회와 씨앗 국제학교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센인 마을에서 한센인 분들을 섬기었습니다. 한센인 분들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약들을 나누어 주고, 또 한센인 자녀들 한명 한명씩 기도해 주며 교육비 후원하면서 이슬람 분들인 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였습니다. 매달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센인 분들이 요즘 계속 소천하고 계시기에 그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꼭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2. 숨바섬 산속 마을에 16번째와 17번째 교회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숨바섬 산속 마을에 새로운 16 번째 마후 마을 과 17 번째 라밍깃 마을에 비록 2 개 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이 준비가 안된 상태지만 우기가 시작되면 건축 자재들을 산 위로 올려 보낼 수 없기에 일단 2 곳 모두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6 번째 마후 마을 교회는 이미 100 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있고 나무로 지어있는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 쓰러지기 직전 이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오래된 교회를 허물고 새로 벽돌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 번째 라밍깃 마을은 올해 초에 새로 찾아낸 마을이며 약 250 여명이 살고 있는 산 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산 등성이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3 시간 반을 걸어서 산을 3 개 넘어 들어가야 되는 마을로써 아직 교회가 전혀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이었는데 그 동안 사역을 통해 벌써 가정집 교회에 30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건축 자재들을 산 등성이부터 3 시간 반이나 사람이 들고 산을 넘어 운반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생기는 첫 번째 벽돌 건물이라고 너도 나도 산등성으로 와서 그 무거운 건축자재들을 날라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건축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모든 건축 공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각 마을사람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3. 숨바섬 산속마을 현지 사역자 2018 년 5 월 성령 수련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아직 아무런 재정적 대책이 없지만 내년 5 월 1 일부터 5 일까지 하고자 하는 숨바섬 현지 사역자 성령 수련회를 발리에서 진행하고자 장소와 강사님을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난 10 년간 숨바섬 산속마을에서 묵묵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 50 여명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난 10 년 숨바섬 사역을 통해 수많은 마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 중 약 95%가 비행기를 타 본적이 없고, 숨바섬을 벗어나 본적도 없으며, 정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재정들이 서로 서로 힘을 모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슴바섬 Reda 마을에 새로운 학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서슴바 지역을 Reda 마을을 시작으로 본격적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하게도 '드림스드림' 이란 단체를 통하여 서슴바 Reda 마을에 비록 3개 교실이지만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게 되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오룬교회 대학부 숨바 선교팀부터 Reda 마을과 Kadu Eta 마을에서 첫번째 어린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서슴바 지역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어 많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말랑 UKCW 기독교종합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대학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UKCW 대학을 떠났던 학생들이 계속 돌아오도록 하고 계시어 15명의 학생들이 이미 돌아왔습니다. 비록 대학은 아직 법정 소송으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들과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대학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또한 12월 13일에는 대학 성탄 예배를 졸업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UKCW 대학을 지켜 주시고 기쁨 부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기도하여 주시고 법정소송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마무리가 되어 대학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숨바 산속 Yoktan 어린이 구순구개열 2차 수술과 발가락 수술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12월 14일 발리 Med 병원에서 숨바산속 Yoktan 어린이의 구순구개열 2차 수술과 발가락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금번에는 발가락 수술까지 있어 10일 정도 입원 후 치료도 2주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Yoktan 어린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 숨바 산속 마을들에 전해 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늘 부족한 저희 부부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7년 12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드림